

# 애플·아너 등 신제품 러시... 프리미엄 시장 '춘추전국'

## 가을 스마트폰 대전 임박

애플 아이폰 15시리즈 출시 임박  
구글 내달 '픽셀8 시리즈' 공개 전망  
아너 폴더블폰 '아너 매직V2' 선보

삼성전자가 폴더블 신제품으로 '스마트폰 대전'의 포문을 연 가운데 애플·구글·아너 등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프리미엄 스마트폰으로 시장 점유율 사냥에 나선다.

11일 모바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13일(한국시간) 오전 2시에 아이폰15 시리즈를 공개한다. 전 시리즈에 '다이내믹 아일랜드'를 적용하고, 유럽 연합(EU)의 USB-C 탑재 의무화 법안 때문에 USB-C형 충전 단자를 채택할 가능성이 유력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아이폰15 시리즈부터는 '울트라'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라인을 출시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울트라 모델은 8GB 램과 최대 2TB의 메모리를 가지고 현재 최고사양인 프로 맥스 라인보다 높은 가격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출고가는 전작 대비 100달러(13만원) 가량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이 2022년 출시한 아이폰14 프로는 미

애플의 아이폰14



/애플

국 판매가 기준 999달러(134만원), 프로 맥스는 1099달러(147만원)였던 것에 비하면 소비자 부담이 높아진 셈이다.

애플의 아이폰 외에도 올해 하반기는 신제품이 다수 출시돼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진다.

구글은 오는 10월 4일 미국 뉴욕에서 '구글 픽셀8 시리즈'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 IT전문매체 등에 따르면, 이번 신제품은 6.31인치에서 출시에 앞서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픽셀8의 화면은 6.31인치에서 6.17인치, 픽셀8 프로의 화면은 6.71인치에서 6.7인치로 전작보다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대 주사율 부분은 90Hz에서 120Hz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카메라는 메인 카메라의 센서가 더 커지고,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의 센서 성능도 더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며, 픽셀8시리즈는 AP(앱 프로세서)로 구글 텐서 G3 칩이 탑재될 전망이다. 출시 전작들의 발매일로 미뤄볼 때 '메이드 바이 구글 행사' 이후인 10월 11일이 유력하나 국내 정식 출시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신형 스마트폰 출시 대열에 합류했다. 중국의 아너는 최근 신상 폴더블폰 '매직 V2'의 글로벌 출시를 발표했다.

독일 베를린에서 1~5일 동안 열린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3'에서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아너(Honor)'는 신규 폴더블폰을 공개했다. 조지 자오



아너의 '매직 V2'

/아너

아너 CEO는 1일 IFA 2023 기조연설에서 "삼성 갤럭시(Z폴드5)의 두께는 13.4mm다. 아너의 (폴더블폰) 매직V2보다 거의 40% 더 두껍다"고 말하며 삼성전자와 맞대결을 선언했다.

삼성전자의 Z폴드5에 적용된 '플렉스 힌지'와 마찬가지로 폰을 접으면 양쪽 화면 사이 유격이 거의 없다. 배터리 용량은 5000mAh로 갤럭시 Z폴드5(4400mAh)나 아이폰14프로맥스(4323mAh)보다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아너 매직 V2 가격은 1250 달러(약 165만원)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Z폴드5 가격(256GB)이 1799 달러(약 238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70만원 정도 저렴한 가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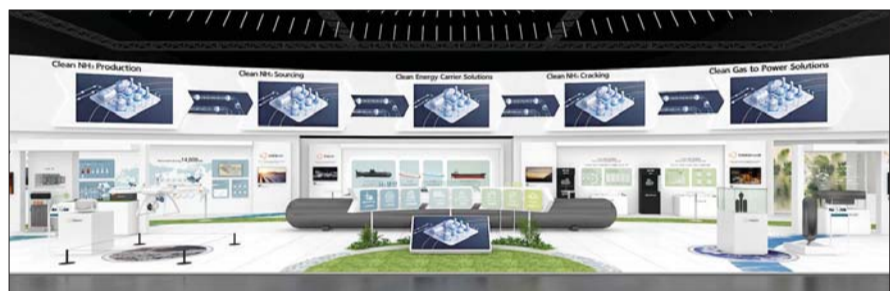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은 제각각이지만 '가격'과 '성능' 측면에서 가격은 중국 업체들이 삼성전자와 대결 구도를 이루고, 성능은 애플이 삼성전자와 호각을 다룰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갤럭시 Z폴드5·Z폴드5 등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연간 판매량이 1000만대를 무난하게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증가도 주목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침체된 글로벌 경기가 지속되고 있어 시장 전체의 파이를 두고 업체들의 경쟁 또한 치열해질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은 올해 4~6월 출하량 5390만대로 1위(19.8%)에 올랐지만,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출하량은 12.4% 감소한 수치로 글로벌 경기침체와 궤를 함께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애플이 삼성전자를 제치고 처음으로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1위에 오를 것이라 내다봤다. 이들은 "9월 출시 예정인 아이폰15의 인기와 비핵심 아이폰 시장의 성장이 애플의 출하량이 삼성을 넘어설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한화그룹의 'H2 MEET' 부스 조감도.

## 한화그룹, 'H2 MEET' 참가 청정수소 밸류체인 선보인다

수전해, 무탄소 발전 등 소개  
"글로벌 탄소중립 기여할 것"

한화그룹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수소 전시회 'H2 MEET'에 참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선 수소 정책을 위한 교류와 네트워킹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이 펼쳐질 예정이다.

한화는 재생에너지와 암모니아를 기반으로 청정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운송·활용해 수소발전소와 수소연료전지까지 활용하는 통합 밸류체인을 선보인다.

청정 수소 생산을 위해 ㉠한화, 한화에너지, 한화솔루션, 한화임팩트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물을 분해해 수소를 얻는 수전해 기술과 암모니아를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소개한다. 한화솔루션은 생산된 수소를 안정적으로 저장·운송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고압 탱크(트레일러 운송용, 수조차, 드론 및 항공우주용 등)도 전시한다. 한화솔루션의 37피

트급(11.1m) 고압탱크는 세계 최대 수준의 저장 용량과 우수한 내압성을 가지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도심항공교통(UAM), 광역교통망(RAM)에 적용할 수 있는 100킬로와트(kW)급 경량형 수소연료전지를 전시한다. 한화오션은 차세대 친환경 선박으로 부상하고 있는 암모니아운반선과 수소연료전지 체계를 탑재한 3000톤급 잠수함 모형도 전시한다.

한화파워시스템은 100% 수소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무탄소 발전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현재 무탄소 발전 직전 단계로 LNG와 수소를 혼합해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혼소 발전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태양광, 풍력 등 기존에 진행하던 재생에너지 사업과 더불어 청정 수소 사업으로 글로벌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이다"며 "특히 수소혼소 발전기술을 적용한 수소발전소를 2027년 대안에서 상업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 하반기 채용

### 현대차그룹, 연구개발 분야 등 신입 선발

현대자동차그룹이 올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로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빠르게 준비하기 위해 인재를 확보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달 14일까지 9월 신입사원 상시 채용 지원서를 접수받는다. 이번 채용은 ▲연구개발 ▲디자인 ▲생산/제조 ▲사업/기획 ▲경영지원 ▲IT 등 총 6개 분야 26개 직무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대졸 신입 채용의 경우 '예측 가능한 상시 채용' 원칙에 따라 매 분기 마지막 달 1일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로 모집한다. /양성운 기자

기아는 25일까지 대졸 신입사원 채용에 나선다. 기아는 상반기에는 매달 직무별 상시 채용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부문별 일괄 채용을 실시하는 방식을 지난해 도입했다.

올 하반기 채용 부문은 ▲글로벌 사업 ▲국내사업 ▲오토랜드화성 ▲오토랜드광명 ▲오토랜드광주 ▲파워트레인(PT)사업 ▲제조솔루션(생산기술) ▲생산기획 ▲구매 ▲품질 ▲고객경험(브랜드·마케팅·CX) ▲재경 ▲안전환경 등 총 13개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이달 17일까지 물류, 해운, 유통, 신사업, KD, IT, 경영지원 등 전 사업 영역에서 하반기 신입 사원을 모집한다. /김재용 기자 juk@

### 효성그룹, 200여명 규모 공채지원 접수

효성그룹이 하반기에도 공개채용에 나서며 일자리 확대에 힘을 더한다.

효성은 11일부터 22일까지 200여명 규모 하반기 공채 지원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효성은 지난해보다 올해 공채 규모를 2배로 늘리게 됐다. 종전까지는 1년에 한번만 진행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같은 규모로 채용을 결정했다.

참가 계열사는 지주사를 비롯해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효성굿스프링스 등 6개다.

모집분야는 ▲영업(해외, 국내, 기술, 무역, 물류, 마케팅) ▲관리(구매, 재무, ESG, 신사업, 인사/총무, 홍보) ▲생산기술(섬유, 화학, 중공업) ▲R&D(섬유, 화학, 중공업, 펄프) ▲IT(시스템 개발, 영업, CS) ▲건설 시공 등 6개다. /김재용 기자 juk@

## 삼성전자

### '비스포크 웨딩 펀딩' 캠페인

삼성전자가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비스포크 웨딩 펀딩(BESPOKE Wedding FUNding)'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에 참여한 예비 부부에게는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모바일 청첩장을 지원한다.

'비스포크 웨딩 펀딩'은 실용적이면서 각자 개성을 담고자 하는 최근 신혼부부 트렌드를 담았다. 예비 부부는 제공하는 비스포크 웨딩 펀딩 모바일 청첩장에 꼭 갖고 싶은 삼성 신혼가전 위시리스트를 추가할 수 있다.

청첩장을 받은 지인들은 위시리스트에 등록된 제품을 선택해 원하는 액수만큼 펀딩에 참여해 신혼 가전 장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 LG전자

### '마이크로 LED' 북미 출시

LG전자가 지난 7일 미국 텍사스주 달러스에서 열린 영상가전 전시회 'CE DIA 2023'에서 공개한 마이크로 LED 신제품을 북미 지역을 시작으로 순차 출시한다.

LG전자는 마이크로 LED 라인업을 지속 확대한 데 이어, 프리미엄 홈 시네마 고객을 위한 제품도 기존 136형 모델을 포함해 2종으로 늘렸다. 신규 출시 제품은 118형(대각선 길이 약 3미터) 크기의 화면에 4K(3840×2160) 해상도를 지원한다. 독자 디스플레이 표면 처리 기술로 어떤 각도에서도 뚜렷한 색을 보여주고, 표면 블랙 코팅으로 블랙 색상을 더 깊고 풍부하게 표현한다. /김서현 기자